

방탄소년단 '러브 마이셀프' 유니세프 최우수 캠페인 선정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 부문 수상

가장 큰 영감 준 캠페인 18개 중 선정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2일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이 2020년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Inspire Awards)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Integrated Campaigns and Events)'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는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전개된 유니세프 캠페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캠페인을 18개 부문에서 선정해 유니세프 본부가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50개국 100개의 캠페인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 전 세계 유니세프 직원의 온라인 투표와 본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러브 마이셀프' 가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

부문에서 최우수 캠페인으로 선정됐다.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 부문은 아동권리 증진, 기금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과 영감을 준 캠페인을 시상하고 있다.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의 이번 수상은 2019년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열렸던 영국, 홍콩, 대국 등 콘서트장 앙파에서 유니세프 홍보부스를 통해 전세계 아동청소년 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세계 팬들과 함께 공유한 결과이다.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유니세프 글로벌 캠페인 #ENDviolence 후원 협약을 맺고 '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월드투어가 열리는 각 나라 유니세프 홍보부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해 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타인에 대한 사랑도 시작될 수 있다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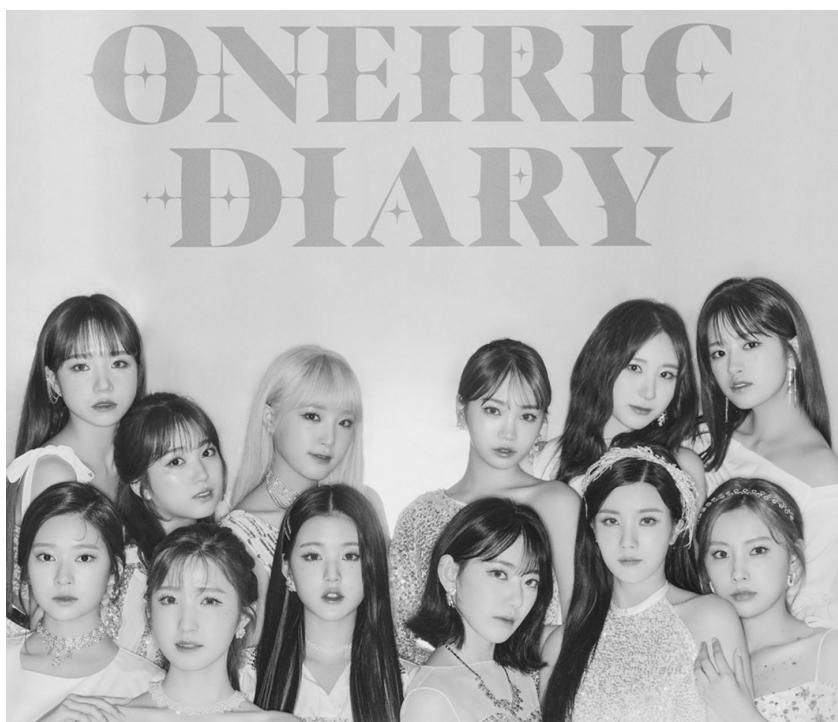
이번 수상은 지구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이번 기회를 빌려 유니세프의 #ENDviolence 캠페인을 항상 적극 지원해주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극 지원해주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이즈원, 걸그룹 앨범 초동 판매량 신기록 경신

해외 31개 지역 '아이튠즈 K팝 앨범 차트' 서 1위



22일 국내 음반 카페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뮤비된 아이즈원의 세 번째 미니앨범 '오나이릭 디아이어리'(Oneiric Diary) 종 초동 판매 수량이 38만 9334장(집계 기준 6월 15일~6월 21일)을 기록했다.

특히 '오나이릭 디아이어리'는 지난 6월 15일~6월 21일)을 기록했다.

난 2월 발매한 첫 번째 정규앨범 '블룸아이즈'(BLOOM*IZ) 종 초동 판매 수량이 35만 6313장을 단 6일 차 만에 뛰어넘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아이즈원은 자체 기록 경신뿐만 아니라 역대 걸그룹 음반 초동 1위를 다시 한번 거머쥐며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인기와 파급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아이즈원의 세 번째 미니앨범 '오나이릭 디아이어리'는 '환상'과 '일기'라는 상반된 소재의 결합으로 표현한 컨셉트 앨범이다.

'오나이릭 디아이어리'는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미국 포함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31개 지역의 아이튠즈 K팝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컴백을 알렸다.

한편 아이즈원은 12명의 제각기 다른 이름다음을 표현한 시네마틱 EDM 댄스곡 '환상동화'(Secret Story of the Swan)로 각종 음악 방송에 출연해 활발하게 컴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영민 탈퇴' 에이비식스, 4인 체제로 29일 컴백 확정

그룹 에이비식스(A B6IX)가 두 번째 미니앨범 '비비드'(VID) 새로운 프로모션 스케줄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브랜뉴뮤직은 에이비식스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오는 29일에 발매될 미니 2집 '비비드'의 프로모션 스케줄 이미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풀른 테니스 코트 위를 수놓은 비비드한 색깔의 공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이미지에는 23일 공

개되는 새 콘셉트 포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새 트랙리스트, 앨범 프리뷰, 뮤직비디오 티저, 뮤직비디오 분편의 공개 일정이 상세히 담겨있어 앨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브랜뉴뮤직은 "에이비식스만의 색깔과 감각으로 팬들과 하나 되어 세상을 선명하고 전하게 물들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번 앨범 '비비드'는 데뷔 앨범 '비: 컴플리트'(B:COMPLETE)와 정규 앨범 '식스센스'(6IXENSE)

로 정의하고 완성한 에이비식스 만의 색깔을 맡 그대로 보다 '비비드'하게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음악들로 가득 채웠다"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에이비식스 멤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4인조로 재정비하여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에이비식스의 두 번째 미니앨범 '비비드'는 오는 29일 오후 6시에 전격 발매된다.

디원스, '너를 그린다'로 컴백 첫 주 성공적 활동...감성 가득

그룹 디원스(D1CE)의 새로운 감성이 컴백 첫 주를 기록 채웠다.

디원스는 지난 17일 두 번째 미니앨범 '드로 유: 리멤버 미'(DRAW YOU : REMEMBER ME)를 발매하고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신보 발매 이튿날인 18일 앰넷·엠카운트다운'으로 타이틀곡 '너를 그린다'의 무대를 선사한 디원스. 이들은 KBS 2TV '뮤직뱅크'와 SBS '인기가요'를 통해 새로운 감성을 품은 퍼포먼스를 '디온리'

리'에게 전달하며 컴백 신고식을 치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MBC 표준 FM '아이돌 리디오'로 적극 소통 방송에 나서며 팬들에게 행복한 웃음은 안긴 것은 물론, 영상 통화 팬 사인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특별한 추억 쌓기를 완성했다.

디원스의 컴백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진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앨범과 타이틀곡의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디온리'를 향

한 감사함과 사랑을 담은 선율 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 초여름에 전하는 디원스의 감성에 팬들의 미소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디원스엔터테인먼트는 "오랫동안 팬분들과 만날 날을 순꼽아 기다려왔다. 컴백 첫 주부터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디온리'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새롭고 이를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레드벨벳 유닛 아이린·슬기, 첫 EP '몬스터'로 출격



레드벨벳-아이린&슬기(Red Velvet - IRENE & SEULGI, 이하 아이린&슬기)가 드디어 출격한다.

아이린&슬기의 첫 번째 미니앨범 '몬스터'(Monster)는 오는 7월 6일 발매된다. '몬스터'(Monster)는 동명의 타이틀곡 '몬스터'를 비롯한 다채로운 매력의 총 여섯 곡이 수록돼 있다.

특히 아이린&슬기는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레드벨벳의 첫 번째 유닛으로, 보컬과 퍼포먼스, 비주얼 모두 완벽한 두 멤버의 조

합으로 완성된 차원이 다른 음악과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더불어 지난 22일 아이린&슬기 공식 홈페이지 및 각종 SNS 레드벨벳 계정을 통해 새 앨범을 예고하는 커머셜 형식의 콘셉트 티저 영상을 공개.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감각적인 영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아이린&슬기의 첫 번째 미니앨범 '몬스터'는 온,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이적 '당연한 것들' 리릭시네마 공개...존박 영어 번역 참여

이적은 지난 21일 자작곡 '당연한 것들' 음원과 함께 리릭시네마를 공개했다.

'당연한 것들' 리릭시네마 영상은 한글, 영어 두 가지 언어를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전 세계 리스너들에게 큰 힘이 돋을 전망이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 특별한 날의 가족 모임, 많은 하객이 참여하는 결혼식, 사람으로 붐비는 여행지, 팬들이 열광하는 콘서트 등 짧은 영상으로 노래 속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열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라는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앞서 이적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것들'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아역배우 김강훈, 김준, 최유리, 김규리, 정현준 등이 '당연한 것들'을 불러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이 축하 무대는 방송 직후 화제를 모았고, 이적에 음원 발매 요청이 쇄도하자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발매가 결정됐다.

'출사표' 나나X박성훈 '극과 극' 매력 캐릭터 포스터 공개



오는 7월 1일 첫 방송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출사표'는 민원왕 구세라(a.k.a 불나방)가 구청에서 참견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결도 하고 연애까지 하는 오피스 로맨틱코미디다.

톡 튀고 재미있게 담아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출사표'는 민원왕 구세라(a.k.a 불나방)가 구청에서 참견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결도 하고 연애까지 하는 오피스 로맨틱코미디다.

나나의 캐릭터 포스터는 극중 '구세라'의 어디로 될지 모르는 러비공 같은 매력을 임팩트 있게

보여준다. 포스터 속 여러 개로 합성된 나나의 표정 중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를 내고, 놀라고, 명 때리고, 윙크하는 등, 한 사람의 아낌이 이렇게 다양한 표정과 느낌을 낼 수 있는지 궁금증을 높인다.

반면 박성훈의 캐릭터는 서공명의 '원칙주의자' 성격을 재미있게 보여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는 슈트 차림의 박성훈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관해 보이는 표정 속, 디테일하게 웃음 포인트를 잡아낸 박성훈의 모습이 극중 깨질면서 서도 허당기 폭발하는 서공명 캐릭터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른 두 캐릭터의 특징에 방점을 찍은 것이 재치 있는 포스터 카피다. 나나의 '또또또또또'와 박성훈의 '싸싸싸싸가지'는 각자의 캐릭터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출사표'는 '영혼수선공' 후속으로 오는 7월 1일 오후 9시 30분 처음 방송된다.